



## 한국 서점산업의 현재와 진흥 방안 지역서점을 독자에게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이 주관한 ‘한국 서점산업의 현재와 진흥방안’ 포럼이 지난 2월 27일 오후 2시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열렸다. 이날 서점포럼에는 보수동책방골목번영회,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 송인서적,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출판학회, 한국출판협동조합, YES24 등이 후원해 진행됐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주제발표하는 김광석 선임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은 지난 1월 30일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이어 2월 27일 ‘한국 서점산업의 현재와 진흥방안’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실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서점 대표는 물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지역서점

이 지역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과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문화의 매개자이자 창조적 조

력자인 지역서점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출판·유통뿐 아니라 경제 분야와 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지역서점 육성 운영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포럼은 운영협의회 위원인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원이 ‘한국 서점산업의 현재와 진흥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지정토론에서는 박두현 부산광역시 중구 구의원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가 ‘서점과 소비자를 위한 도서 가격’에 대해, 광현숙 아벨서점 대표가 ‘지역서점 실태와 미래’에 대해, 김경배 시간여행출판사 발행인이 ‘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서유통과 마케팅’에 대해 발표했다.

## 한국 서점산업의 현재와 진흥방안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출판산업의 총 종사자 수는 15만4천명으로, 사업체수는 약 2만8천개로 사업체당 5.2명이 종사하고 있다. 특히 서점산업의 경우 사업체당 4.1명으로 규모가 영세하다. 대내외 경제불안 및 출판산업의 퇴조와 함께 서점산업의 고용창출력 역시 급감하고 있는데, 도매업의 경우 2005년 1만4600명에서 2010년 1만1081명으로 감소했고, 소매업도 2만4977명에서 2만782명으로 감소했다. 매출액 역시 크게 감소했는데, 소매업의 매출액은 2005년 4.38조원에서 2010년 4.37조원으로 소폭 감소했고, 도매업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동안 3.25조원에서 2.96조원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침체되고 있는 서점산업의 진흥을 위해 김 연구원은 “지역서점 상품권을 개발해 보급하는 것이 서점산업 진흥을 위한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시장 상품권의 경우 2009년에는 상품권 발행액이 100억원에 불과했으나 꾸준히 성장해 2012년 1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현재 도서 상품권이 있으나 도서 외에도 만화,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어 효용성이 없는 만큼 지역서점의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개발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 “책 파는 곳이 아닌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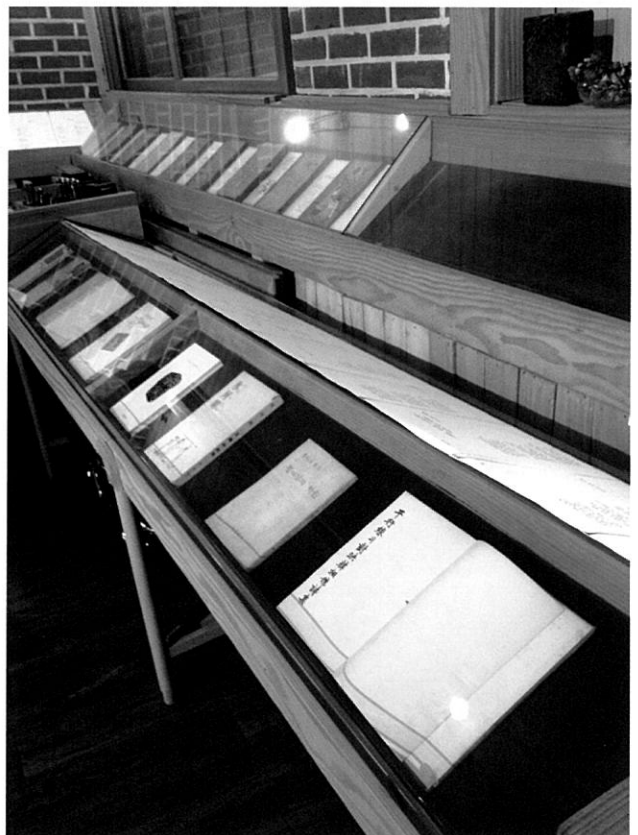
지정토론에서 박두현 부산광역시 중구 구의원은 “보수동 책방골목은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1가 일원에 조성된 특성화된 책방거리로, 관련 조례 마련 및 예산 지원 등 지자체와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지역의 문화 명소로 성장함으로써 지역서점 활성화의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다.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점 스스로가 단순한 도서판매의 틀에서 벗어나 독자들에게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자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는 “지역서점과 온라인서점, 대형마트에서 공통으로 찾아볼 수 있는 아동도서와 인문교양서, 학술도서 등을 10여 종 선정해 각각의 도서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 항목과 판매가격 등을 비교했다. 판매가격은 대형마트내 서점과 대형서점, 지역서점에서는 정가로 판매되고 있으며, 인터넷서점에서는 10~32%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는 인터넷 서점은 50~60%, 지역서점은 60~75%에

서 매입하기 때문에 인터넷 서점이 지역서점보다 싸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에서 할인 판매하고 있는 도서가 격이 출판사와 서점, 소비자를 위한 가격이라면 도서의 표시가격이 이 할인가격으로 표시돼 전국 어느 서점을 가더라도 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에 도서를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현숙 아벨서점 대표는 “인천 배다리에서 40년 동안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오로지 책이 좋아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책방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지역마다 열린 책방이 힘있게 제 맛을 낼 때 이슈에 물리는 군중심은 찾아들고, 사람이 큰 숨을 쉬게 하는 숲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경배 시간여행출판사 발행인은 “지역 서점의 매출 하락은 불공정한 제도, 독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도서유통채널의 확장도 있지만 서점 경영자들이 시장의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도서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독자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 내 독자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배다리에 있는 헌책방 '아벨서점'. 아벨서점은 시낭송회 개최 등 다양한 행사로 지역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진은 아벨서점 2층